

월간 <국방과 기술>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월간 <국방과 기술>지 창간 20돌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묘년 새해를 맞아 방위산업 관계자 및 애독자 여러분께 행운과 발전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79년 1월 창간 이래 선진국의 무기 체계와 국내의 방산업계의 동향, 국방정책 및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주국방체계의 구축과 국민 안보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해 온 <국방과 기술>지가 명실공히 국내 최고수준의 군사전문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한 국가의 방위산업은 전·평시를 막론하고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존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70년대초 우리의 취약한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출발했던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경제성장에 따라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이에 힘입어 우리 군은 최신에 국산장비로 무장한 막강한 군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첨단과학기술이 전장을 지배하게 될 미래전에 대비하여 한국형 무기체계의 개발과 통합전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군사과학기술의 발전 및 민·군 겸용기술의 개발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방예산이 최초로 감소편성되는 등 여건의 악화는 방위력 개선에도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우선적으로 국가경제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경제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대북 억제전력을 완비하며, 장기적으로는 미래안보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화·과학화된 군사력 건설을 위해 목표 지향적이며 투명한 방위력 개선사업을 추구해 나가는 동시에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방위산업의 성장과 맥을 같이 해 온 <국방과 기술>지가 창간 20주년을 계기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창간 20주년을 축하하며...

발 달된 외국의 무기체계와 이에 따른 기술동향 및 발전 추세 등을 전문가의 고견을 곁들여 최신 정보를 제공해온 월간 <국방과 기술>의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 나라의 군사력은 국가방위를 효과적으로 이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를 지킬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정 부수립과 더불어 출범한 우리 국군의 편성과 무기체계는 지금으 로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국군이 6·25전쟁과 베트남 파병 등을 거치면서 자주국 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전국민의 절대적인 성원하에 시작 된 율곡사업을 기점으로 우리의 방위력은 부족하나마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산업체의 공헌 또한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면서 대두된 문제는 선진화된 무기체계에 대한 폭넓은 정보수집의 어려움과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절차의 폐 쇄성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효과적인 방위력 건설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상당부분 국 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늘에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기체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분석할 수 있는냐는 것입니다. 세계 각 국에서는 첨단 과학화된 신무기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 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향후 무기체계의 발전 추세를 기능해 볼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방 관계자 및 사회 각분야에서 다양한 검토를 거쳐 우리의 방위력 개선과 증 강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80여개의 방산업체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국방관계자 혹은 민간전문가들의 연구활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게도 우리의 경우 아직도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월간 <국방과 기술>이 보다 정리된 최신정보와 정책대안을 제시해온 것이 커다 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에 걸친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 각종 최신정보와 정책대 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방위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